

공리주의 행복론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학적 접근*

- 행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성신형 (송실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공적 행복과 공리주의

1. 개인의 행복과 공적 행복
2. 양적 행복과 질적 행복
3. 정의와 자유

III.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과 기독교 현실주의

1.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
2. 기독교 현실주의와 공리주의

IV. 나가는 말

* 본 논문은 2012년 11월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012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A Christian Social Ethical Approach to the Idea of Happiness in Utilitarianism

Seong, Shin-Hyung

The initiative question of this research is the social desire for happiness, the dominance of the idea of social utility, and the public value of happiness. And this research aims to interpret this phenomenon through the lens of Christian social ethics, in particular, Christian realism. First, it explores the Utilitarian thoughts of happiness and its public value related to the idea of the social happiness. Then, it studies Augustinian ethical thought on happiness and its influence into Christian realism. Lastly, it proposes that Christian realism needs to understand the idea of happiness in Utilitarianism in terms of individual liberty and justic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the idea of happiness, Christian Social ethics can develop its ethical inquiries into the reality and formulate its responsible answer for this society to desire social happiness.

Key words: Utilitarianism, Bentham, John S. Mill, Augustine, Ethics of Happiness, Christian Realism.

I. 들어가는 말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피로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 진보를 신앙하고 있는 인류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일련의 문명을 이루었지만, 현재 사회는 이 성과주의에 대한 피로감으로 성과주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지경에 빠졌다고 그는 진단하고 있다. 이제 착취의 대상은 타자가 아닌 내가 되어버렸다. 착취자와 착취대상이 같아져버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회는 피로하고 우울하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성과사회에서 겪는 우울증과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핑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신의 명령을 위반하여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호모 사케르가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 무엇인가 신경안정제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피로감을 덜어줄 뿐, 근본적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¹⁾

한편,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구호를 행복으로 정한 정당도 있는가 하면, 제품 광고 문구에서도 심심찮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생리적 문제를 덜어내는 공공장소에도 커다랗게 “행복하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음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행복에 대해서 정의내리거나 행복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상실해 버렸다. 그야말로 사회는 피로하고 우울하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논문은 행복의 공공성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사회가 피로해지고 우울해지면, 그 감각을 무디게 하는 도핑을 감행해서 무디게 만들 것이 아니라, 피로에 대해서 잘

1) 한병철, 김태완 역, 『피로사회』(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진단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불행한 현실에 대한 완전한 진단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유령처럼 맴돌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그 생각의 한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공리주의의 행복론에 나타나는 행복의 공공성에 대해서 살펴면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벤담과 밀, 아우구스티누스 행복이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행복의 공공성의 의미를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한다. 먼저, 공리주의의 행복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공리주의 행복의 지표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볼 것이다. 다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행복론이 기독교 현실주의의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공공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기독교 윤리, 특히 기독교 사회윤리가 취할 수 있는 공공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윤리적 입장을 바탕으로 공리주의 행복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II. 공적행복과 공리주의

1. 개인의 행복과 공적 행복

“행복”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이것은 사회의 물질문명이 발달되면,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로, 그야말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성취사회가 발달되면서, 성취에 의해서 행복해질 것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상력은 좌절되었으며, 성취사회에서 오는 피로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상상력은 갈망 수준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이 지젝의 '체코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사람들의 행복의 경험에 대한 설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당시 체코 사람들의 행복감은 물질적 욕구의 기본적인 충족, 개인적인 욕구의 좌절을 타할 수 있는 공산당의 실제,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열망 등으로 표출되어 심리적 행복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 체코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의 욕망이 과도해지고, 지나침과 부족함이 균형이 깨어지면서 행복의 감각도 상실되게 되었다고 지젝은 지적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한 나라의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도 드러난다. 행복에 대한 상상력의 첫 번째 출발점은 개인적인 성취에 있게 된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의 정도를 묻게 되고 더 많은 성취를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성취를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공동의 행복이나, 사회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더 많은 진보를 만들어 내었을 때에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실로, '과연 행복한가?'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행복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행복한 개인 혹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다.

2) 김선욱, 『행복의 철학』(서울: 도서출판 길, 2011), 22-23.

이와 같은 행복의 담론을 김선욱은 행복의 공공성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인간의 행복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과정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단지 결과로 이해하고,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어떤 정지된 상태로 행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행복을 삶 전체의 일로 이해하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³⁾

이와 같이 행복을 과정으로 이해할 때에, 사람이 행복해 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존재하게 되며, 그러한 구조들이 무시되지 않고, 잘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기 위해서, 경제의 바탕인 노동과 인간의 활동인 작업을 인간 행복의 기초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⁴⁾ 노동과 작업은 인간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일로 이러한 일들은 인간 공동의 활동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인간은 공적인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유지라는 생존의 차원에서 인간 자신이 기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공적인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인간은 개인과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의식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⁵⁾

이와 같은 노동과 작업이해를 바탕으로 공적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김선욱은 공적 행복이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행복”을 근거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공적 행복은 시민적 자유가

3) 위의 책, 28-30.

4) 위의 책, 33-38. 노동과 작업, 그리고 활동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설명은 한나 아렌트의 책 『인간의 조건』에 더 깊게 수록되어 있다. 아렌트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경제의 기본적인 일을 노동으로, 생존을 위한 일보다 더 많은 다양한 차원의 작업으로, 인간 본연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공적인 일을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인간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5) 위의 책, 39.

가능했던 근대 이후, 특히 미국 혁명의 모델을 바탕으로 평등한 시민, 자유로운 시민 의식이 형성되면서 더불어 생겨나게 된 경험이다.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차이에 대한 열정”이 공적 행복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고, 발언이 경청되고, 인구에 회자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이다.”⁷⁾ 이러한 열정은 악덕과 미덕으로 구분되는데, 미덕이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아지고자 하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동의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공공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나쁜 야망으로 나오는 것은 악덕인데, 이러한 모습은 나를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획득하려는 태도이다. 경쟁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권력욕으로 발전하는 것은 공동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이 되고 만다.⁸⁾

행복의 공공성에 대한 김선욱의 이와 같은 분석은 오늘 우리 사회를 읽는데 타당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상상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어떤 소모적인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경쟁 혹은 활동이 될 때에, 행복이 가능하기에 그렇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행복의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이익에 대한 이해와,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담론들을 만들어갈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6) 위의 책, 47.

7) 위의 책, 59.

8) 위의 책, 59.

2. 양적 행복과 질적 행복

이상에서 우리는 행복의 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정치적 함의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깊게 접근하고 있는 공리주의의 행복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공리주의 행복론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벤담으로부터 밀까지 이어지는 행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싶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공리주의의 출발선에서 드러나는 논쟁인 양적 행복과 질적 행복의 차이이다. 공리주의 철학의 창시자 격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윤리적 구호는 벤담의 인간이해에 바탕을 두는데, 그것은 사람의 본질은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벤담은 “자연은 사람을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고 한다.⁹⁾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벤담은 공리성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윤리의 기준이 그리고 인과성의 기준이 이 두 주인의 지배하에 놓여있으며, 이는 공리성의 원리에 바탕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리성의 원리란,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로, 개인과 공동체는 모두 이 원리에 지배를 받게 된다. 특히, 공동체의 이익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벤담은 설명하면서, 입법의 원리를 공리성의 원리에 토대를 둘 것을 주장한다.¹⁰⁾

공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벤담은 당시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조류 아래에서 매우 독특한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사회계약론적인 개혁을 꿈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

9) 제레미 벤담, 고정식 역,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파주: 나남, 2011), 27.

10) 위의 책, 27-29.

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개혁의 제일 과제를 법률이나 형법제도의 개혁을 통한 사회 개혁을 제안했으며, 보편적 자연 권에 대한 생각보다는 공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군주제, 상원, 영국 국교회 폐지, 보통 선거권 등을 주장하면서 매우 혁신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였지만, 다른 사회계약론자들과는 달리 그의 일관된 생각은 공리성에 바탕을 둔 행복의 원리이다.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성과 법률은 동원되어야 할 수단이며, 법률이 올바르다면 그것은 행복을 창출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이성의 원리에 부합되게 될 것으로 그는 보았다. 또한 벤담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합의에 따른 복종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사회 계약 사상에 반대하면서 정부에 대한 복종의 근거는 공리성, 즉 복종할 때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¹¹⁾ 이와 같이 벤담은 사회 개혁의 문제를 일관되게 공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장했으며, 그것은 고통의 최소화와 쾌락의 최대화라는 양적인 개념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스승 벤담에게서 행복의 양적인 측면에서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할 것을 배우는 동안, 밀은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과 쾌락이라는 행동의 결과보다도 인간 내면의 행동의 원천이 더욱 복잡하고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밀의 유명한 명제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도 불만족해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¹²⁾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밀은 벤담의 쾌락의 개량화보다는 질적 행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의 공리주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밀은 최대 행

11) 위의 책, 485-499, 옮긴이 해제, “벤담의 생애와 사상.”

12)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공리주의』(서울: 책세상, 2011), 29.

복이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합친 총량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행복의 공리성 혹은 공공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¹³⁾ 밀은 행복의 중립적 기준을 주장하면서 공리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첫째, 개인과 전체의 이익은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행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밀은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행동 규칙으로 행복을 증대하기 위한 덕스러움을 주장하고 있다.¹⁴⁾

밀의 행동 규칙은 덕스러운 행동의 사회적 이익(공익)에 대한 배려이다. 이 원리는 벤담의 공리주의 원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개인적 도덕률이 사회적 공익성에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에 대한 무시의 측면을 비판하면서, 행동의 결과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윤리적 기준, 즉 행복의 공리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런 점에서 밀은 효용의 원리(the principle of utility)와 도덕률의 조화, 혹은 부합을 말하고 있다. 우선, 효용성의 원리가 윤리적 의의를 띠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함으로 공리성의 원리를 옹호하고 있으며, 한편, 도덕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용성의 원리에 배제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은 개인의 차원의 행복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어야 함을 주장한다.¹⁶⁾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삶의 목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도덕률에 구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¹⁷⁾ 이와 같은 밀의 행복의 효용성의

13) 위의 책, 32.

14) 위의 책, 42-44.

15) 위의 책, 44-47.

16) 위의 책, 60-61.

원리와 덕스러운 행동의 조화는 “행복의 추구(공리주의)와 도덕적 성격의 강조(덕론)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관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밀의 행복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삶의 제 1 목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 목적으로 도덕적 탁월성(덕)을 지닌 사람은 전체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덕과 행복의 가치이다. 이와 같은 덕과 공리의 양립가능성은 밀의 질적인 쾌락의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고상한 쾌락과 자유”는 행복의 본질적이 요소이며, 이것이야말로 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리주의라고 밀은 생각하고 있다.¹⁸⁾

3. 정의와 자유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공적/정치적 행복론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밀의 정의론과 자유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사회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행복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행복감과도 연결되어 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공리성의 원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 밀은 이와 같은 생각을 자신의 정의에 대한 논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도덕률과 효용성의 원리의 조화를 바탕으로 밀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정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그것은 법적 권리의 존중, 도덕적 권리의 존중, 응당한 보수, 신뢰의 존중, 불편부당성, 그리고 평등이다. 법적 권리의 존중이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며, 법적 권위가 잘못된 경우 즉 불의한 소유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위해서는 도덕적 권리를

17) 위의 책, 70-71.

18) 허남결, 『밀의 공리주의—덕과 공리성의 만남』(서울: 서광사, 2000), 130.

존중해야 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응당한 보수는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보편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신뢰를 깨뜨리는 일, 편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편의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평등이다.¹⁹⁾ 또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은 이와 같은 행동 규칙에 강제력을 붙여넣어주는 감정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규칙이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규칙을 위배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²⁰⁾ 정의란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야할 원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원리적 성격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밀은 주장한다. 여기에서 밀은 사회적 효용성(social utility)으로 정의 개념의 공리주의적 성격을 규정한다. 사회적 효용성이란 개인의 정의감과 정의의 원리가 충돌할 경우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의라는 자의적 평가 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을 따져보아야 함을 말한다.²¹⁾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밀은 정의와 편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의론에 대한 그의 공리적 입장을 견지한다. 밀에게 있어서 정의란 공리성의 기초가 되는 어떤 행동 기준으로 그것은 도덕성에 바탕을 둔 판단이라면, 편의는 특정 사회가 가지는 효용성에 바탕을 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그 구속력이 매우 크다고 한다면, 그 구속력에 대한 사회적 효용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밀의 입장이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사회적 효용성의 입장에서 정의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대한 편의 사이의 구별과 이해가 필요하다. 도덕적 차원의

19)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92-95.

20) 위의 책, 107.

21) 위의 책, 111-116.

정의감 자체가 그 사회의 편의적 차원에서의 효용성으로 작용하면서 사람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의감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차원의 요구도 특정 사회의 효용에 적합한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단순한 감정 보다는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 줌으로 사회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정도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면, 이런 점에서 정의는 그 공리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²²⁾

정의와 공리성이라는 두 단어의 부조화만큼, 자유와 공리성이라는 말도 사실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니다. 자유는 개인의 존엄에 대한 문제인 반면 공리성이란 사회의 효용성과 행복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의론과 아울러 밀의 자유론은 공리주의 행복론의 정치적 의미를 설명해주는 좋은 개념이다. 밀의 공리주의적인 접근은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밀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개념도 공리성, 즉 효용성의 원리로 풀어나간다. 개인의 자유는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다. 개인의 행복의 원천으로서의 자유에는 세 가지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의 내적 영역, 목적의 추구하고 취미의 선택,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이다. 이 모든 조건 가운데 하나로 응집한다면, 밀이 생각하는 자유는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밀은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논거하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로 설명한다.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공리, 혹은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밀은 보고 있다. 자유는 타인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행복을 최대

22) 위의 책, 118-126.

한 추구할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다.²³⁾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밀은 그의 정치사상을 전개한다. 밀의 정치론은 자유론에 바탕을 둔, 자유와 사회 질서의 조화이다. ‘자유는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그렇다고 사회적 효용성을 등한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밀의 정치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우선 밀은 대중 여론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중 여론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유지시켜 주는 개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가장 발달된 인간 사회의 모습은 개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 여론은 이와 같은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기능을 한다. 여론에 대한 지나친 숭배와 관습에 대한 맹목적 혹은 독재적 발상은 개성을 억압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찾는 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²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상적인 정부의 역할은 권력의 효율적 분산과 정보의 집중 및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의 가치는 개인의 가치이기에 개성을 무시하고 행정적 능력만을 존중하는 국가나 국민을 순종적으로 만드는 정치선 바람직하지 않다. 밀의 정부론은 작은 정부론으로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해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밀의 정치이론은 현 민주사회 이론의 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공리주의 행복론의 정치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밀의 정의론과 자유론을 살펴보았다. 정의와 자유는 모두 사회적 효용성이라는 공

23) 존 스튜어트 밀, 이진희 역, 『자유론』(서울: 풀빛, 2011), 37-41.

24) 오병선, 「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제한의 원리」, 이근식, 서병훈 편저, 『자유주의와 한국사회』(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7), 174-175.

25) 존 스튜어트 밀, 앞의 책, 137-154.

26) 위의 책, 212-214.

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의에 있어서는 정의의 공리적 성격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으며, 자유론에서는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가 행복의 원천임을 밝히면서,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리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 두 장에서는 공리주의 행복론의 공공성 즉 그 정치적 성격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I.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과 기독교 현실주의

1.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

이상에서 우리는 공적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공리주의 행복의 원리와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벤담과 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공리성의 원리는 벤담에게는 입법 원리를, 밀에게는 도덕 성립과 사회적 효용성의 원리를 제공해주었음을 보았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기독교 행복론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그 정치적 의미를 기독교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입장에서 행복론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논증한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최상의 선한 상태는 행복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신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 영혼의 행복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상태를 떠난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으로 가득채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아름다움을 채워가는 상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시간 안에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the Supreme Good)은 행복으로 현재의 행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밀어내고 계속해서 견딤으로 이루어가는 미래의 행복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악의 근원인 교만으로서의 악을 극복하고 지혜의 덕을 세움으로 행복에 이르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철학적 전통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에피쿠로스적인 행복과 스토아적인 행복을 비판하고 있다. 에피쿠로스학파의 행복론에서 우리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쾌락과 행복의 관계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유일한 선으로 주장하면서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고통을 수반하는 역동적 쾌락과 고통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수동적 쾌락이 그것들이다.²⁸⁾ 한편 스토아적인 행복이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걱정에 휩싸이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이다. 스토아주의는 운명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마음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쾌락과 행복을 구분할 것을 말하면서, 에피쿠로스의 물질주의적 현재지향성과 스토아의 정신주의적 운명론을 대신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불변성과 영원성으로 인식론적 차원에서 불변하는 무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성과 영원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영원불변의 존재인 신을 최고선으로 말하고 있다. 마침내 신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27) St, Augustine, *City of God*, trans., Henry Bettenson, (London: Penguin Books, 1972), Book 19.

28)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이 윤리학』(서울: 서광사 1996), 43.

29) 위의 책, 46-47.

말하고 있다.³⁰⁾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족함에서 충만함의 자유로 들어가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현명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충만함과 반대되는 성격으로서의 과잉을 멀리하고 절제에서 유래하는 중용의 덕을 가지게 된다. 이 중용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지혜이다. 지혜는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넘어서 절제의 지혜를 가지는 현명함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혜는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진리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하나님에 완전히 맛 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맛들임은 완전한 즐거움의 의미하는 것이다. 지혜로 만족함을 느끼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그것이 행복이며, 현명한 사람의 지복(felicity)이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경외함으로 인식하고, 인식함으로 진리에 이르고, 즐거움(향유함)으로 진리와 결합함을 통해서 인간은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³¹⁾ 즉, 나의 존재 자체(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의 요구이다.³²⁾

이와 같은 행복론을 바탕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윤리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의 핵심은 사랑(caritas)이다. 그는 사랑을 바탕으로 덕의 윤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인 카리타스란, 그리스 철학의 에로스(미적 욕구를 뛰어넘는 행복과 선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서 신의 은총에 의해서 정화된 사랑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생각해보는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카리타스, 즉 사랑은 그의 행복론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30) 위의 책, 56-68.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 대한 인용은 *City of God*, Book 10.

31) 아우구스티누스, 박주영 역, 『행복론』(서울: 누멘, 2005), 59-67.

32) St. Augustine, *Confessions*, trans., Henry Chadwic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96.

필요하다. 즉 사랑은 행복에 이끄는 덕으로서의 윤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³³⁾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거룩하고 완전하며 순결한 아름다움의 거주지인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 행복으로 이르게 하는 도구이다.³⁴⁾ 이와 같이 덕으로서의 사랑은 사람의 윤리적 행동의 근간으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의 표준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사랑을 덕으로 하는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즉 사랑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윤리적 기준, 즉 덕목이다.³⁵⁾

이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의 윤리학은 기독교 현실주의, 특히 라인홀드 니버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현실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신의 도성을 바라는 상황이 그것이며, 진리의 향유를 통한 사랑의 행동이 그것이다.³⁶⁾ 이것은 기독교적 인간이해의 표준으로 니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한계성과 초월의 가능성을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덕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사회 정의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 결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³⁷⁾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의 윤리가 사회 윤리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것은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현실 사회 정의의 문제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면서도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의 윤리의 전제가 인간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의 열쇠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니버는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초월적인 존

33)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이 윤리학』(서울: 서광사 1996), 79-84.

34) St. Augustine, *Faith, Hope and Charity*, trans., Louis A. Arand, (Baltimore: J. H. Furst Company, 1947), 13.

35) 문시영, 앞의 책, 100-101.

36)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의 부록, 186-189.

37)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32, 1960, 2001), 69-70.

재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이면서 죄인이라는 인간이해에 대한 지평을 열어 준 아우구스티누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니버는 이것을 토대로 사회 현실의 문제를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에 있어서 사랑의 절대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³⁸⁾ 아울러, 니버는 이러한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독교 윤리가 서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가 조금 더 사회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⁹⁾

2. 기독교 현실주의와 공리주의

이제 이 연구의 마지막 부분으로 필자는 공리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논쟁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먼저 두 사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행복에 관한 차이와 비슷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현실주의가 공리주의로부터 들어야 할 행복에 관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리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는 그 뿌리를 행복에 두고 있다. 특히 두 사상 모두 행복의 공공적 성격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공리주의의 행복은 공공의 쾌락의 극대화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입법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나, 사회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근간에는 사회적 효용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정의의 문제나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38)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187-189.

39) 위의 책, 191. 니버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참고해야 한다.

공공성의 문제와 충돌하게 될 때에, 분명한 것은 행복에 대한 사회의 효용적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지고한 선의 바탕을 인간의 행복으로 보고 있다. 행복은 개인적인 충만함의 차원에서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는 그것이다. 하지만, 이 행복은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윤리적 삶을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공공을 위한 인간의 덕이다. 현실의 삶에서 사랑은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를 결단하게 만든다. 이러한 생각은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기독교 사회윤리의 근간은 사회를 위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즉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회 참여이다.

행복에 대한 공리주의의 공공성과 기독교 윤리의 현실주의는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리주의의 행복의 공공성은 정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적인 정치의 실현이다. 이것의 기반은 사회적 효용성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 현실주의의 행복의 공공성의 기반은 신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용의 덕을 지키면서 봉사하는 정신 즉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실천이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정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효용성을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현실주의는 사회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랑을 극대화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이와 같은 측면을 토대로 기독교 현실주의와 공리주의의 비교를 시도하려고 한다. 기독교현실주의가 공리주의로부터 들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필자의 관심이다. 우선, 행복에 대한 접근 가운데, 그 공공성 혹은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먼

저 필자는 기독교 현실주의의 현실 이해와 공리주의의 사회 이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공리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혁이 필요한 현실 인식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상 나라의 한계를 지닌(지상 나라와 천상 나라 개념) 인간의 삶의 터전(혹은 실제 삶으로서의 현실)이 과연 전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기독교 현실주의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현실의 악의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사회적 이해이다. 또한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악을 이기고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윤리적 덕으로서의 사랑 즉 인류의 행복을 위한 보편적 사랑이 구체적 현실에서의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책임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현실주의의 기초인 사랑을 통한 정의의 윤리가 공리주의가 말하고 있는 자유와 정의에 관한 생각으로부터 들어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사회가 전반의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공리주의적 사고를 중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고, 행복의 윤리적 삶에 대한 공공성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나가는 말

행복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삶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삶의 가장 큰 목표이고 이유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와 이성적인 삶이 행복의 근간이 되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 혹은 사회의 공적 행복이 개인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공적 행복이란 말은 우리에게 상당

히 중요한 것이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 피로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의 공공성, 혹은 그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현재를 생각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공적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사회적인 성취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의 관계를 생각하고, 함께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은 윤리적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행복의 의미와 공리주의적인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생각할 능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찾으며, 종교화되어버린 교회를 정화하려는 한 노력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로감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더 이상 교회가 사회의 피로감에 더 심각한 피로물질(어느 비타민 제품 광고 문구)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김선욱. 『행복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길, 2011.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이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6.
- 아우구스티누스, 박주영 역. 『행복론』. 서울: 누멘, 2005.
- 이근식 · 서병훈 편저.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7.
- 제레미 벤담, 고정식 역. 『도덕과 입법의 원리서설』. 파주: 나남, 2011.
-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공리주의』. 서울: 책세상, 2011.
- 존 스튜어트 밀, 이진희 역. 『자유론』. 서울: 풀빛, 2011.
- 한병철, 김태완 역.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 허남결. 『밀의 공리주의 - 덕과 공리성의 만남』. 서울: 서광사, 2000.
-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St, Augustine. *City of God*, trans. Henry Bettenson. London: Penguin Books, 1972.
- St, Augustine. *Confessions*, trans. Henry Chadwic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St, Augustine. *Faith, Hope and Charity*, trans. Louis A. Arand. Baltimore: J. H. Furst Company, 1947.

논문투고일: 2013. 2. 26.

심사개시일: 2013. 3. 23.

게재확정일: 2013. 4. 22.

• 국 문 초 록 •

행복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와 사회의 공리주의적인 현실이 이 논문의 출발점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기독교 사회 윤리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논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에 대한 사회의 갈망, 특히 행복의 공공성에 대한 현 사회의 이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논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복에 대한 논의가 철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흐름에서 어떻게 탐구되어 왔는지가 그 다음 과제입니다. 벤담과 밀의 행복의 공공성에 대한 윤리적 연구를 통해서 정의와 자유가 개인과 사회의 공공적 행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의 윤리적 행복론을 탐구하면서 그의 사랑의 윤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의 행복론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면서 그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점을 바탕으로 필자는 기독교 현실주의와 공리주의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리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현실주의 윤리가 해야 할 필요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독교 현실주의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공리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윤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제안으로 논문은 마쳐집니다.

주제어: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어거스틴, 행복론, 기독교 현실주의
